

퇴명복수가



[해제]

<대명복수가>는 1824년(순조 24) 창헌(蒼軒) 조우각(趙宇愨)이 지은 가사로 홍재휴(洪在休) 소장본, 김광순(金光淳) 소장본, 안영창(安永昌) 소장본 등의 이본이 있다. 본 작품이 저본으로 삼은 것은 한국 가사문학관 소장본이다. 한지 두루마리에 연속된 줄글형태로 필사되어 있으며, 앞에 결락된 부분이 많다. 작자는 미상이며, 필사시기 또한 미상이다. <대명복수가>는 영천(永川)을 중심으로 경북 일원에 전하여 애송되던 가사로서, 특히 영천 지방의 고로(古老)들이나 부녀자들은 이를 암송하는 이도 있음을 보아 창헌(蒼軒) 조우각(趙友愨)의 유작 중에 가장 널리 전승된 장편가사라 하겠다. 이 작품은 청나라를 쳐서 명나라의 복수를 하겠다는 이상을 읊은 작품으로 내용은 명나라가 청나라에 의하여 멸망된 것을 슬퍼하며, 병자호란으로 인하여 우리가 당한 치욕을 설욕하지 못한 것을 통탄하였다. 명의 멸망을 비탄하고, 호란(胡亂)이 끼친 민족적 치욕을 설욕치 못하는 유분과 통한을 격렬한 어사로 도도히 엮어가며 구화신을 통격하고 중국과 동국 일대의 충의열사를 모두 명나라 황실을 회복하고 병자년의 성하맹을 설치해 보자는 것이다. 또한, 강화를 주장한 최명길(崔鳴吉) 등을 신랄하게 비난하고, 중국과 우리나라 역대 충의열사들을 모두 동원하여 청나라를 쳐부수는 궤재를 노래한 작품이다.

[원문]

대명복수가

◆◆◆◆◆ 슈를취코말이츄풍다달나
 ◆◆◆◆◆ 빅횡의 온후의 출스표 노취하니
 ◆◆ 송이송 다던지고 뒤명소식 어뒤런고
 남◆◆◆ 도쥬 드러간후 영역년호 그만이라
 당◆◆◆ 지 잇건마난 강흔조종 글엇쏘다
 만◆◆◆ 동 이한구난 선조일싱 말숨이오
 용◆◆◆◆ 셔구도난 속종뒤왕 여도시라
 유◆ 신 하건마는 낙시신닌 하런고셔
 뒤가침원 ◆◆◆ 박물셔고 뒤단말가
 히마다 동지횡◆ 압강건너 어뒤가노
 오호호 부노호라 쳐◆◆ 담 혀여보시
 금년히셔 갑신이라 천도◆◆◆◆◆ 북일식 풍시그란
 국한중의 비◆◆ 영흔천 슷티엇고
 심월근음 성한곳의 ◆◆ 양획 다시나니
 호무익년 옛마리라
 저◆◆◆ 인들 오힐손냐 승정황저 유민드라
 ◆◆◆ 상담 멧빅년고 조정무신 기다리면
 ◆◆◆ 지슈 말기로다 만고충의 다모두아
 ◆◆ 수연운 혀여보즈 삼딘인 불상의로 다
 ◆◆ 군츄이혀 혀여보니 존쥬실양 이적은
 ◆◆◆ 오도 일흥조코 삼촌설각 저진은노
 ◆◆ 연이 승괘하다 편초하던 오자셔오 보

◆◆하던 장즈방이 향연스저 왕족어오 소
 ◆◆피월 범어로다 굴기츄호 고스하고 중
 ◆응명장 다부르니 강의디안 광무디오 삼
 ◆◆◆정통 촉흔이라 반벽강남 남도송은
 ◆◆◆분더욱 격절하다 니빅과 장위공은
 ◆◆하순무 먼저가고 등수도 풍디슈난 유
 ◆병경약 쏘보닉니 전문통판 구순이오 촌
 ◆◆◆◆종스 방통이라 육군도독 위할언
 ◆◆◆악무목 한서충이 슈군도독 뉘할년
 ◆◆관운중 조즈룡이 유격중의 오한가복
 ◆북병중의 장비마초 그나마 충신의 스멋
 ◆◆◆모혀던고 십년흔절 소중낭은 믹울
 ◆◆지 당당하고 일편봉스 호담암은 춤회
 ◆◆삼봉 능능하다 소렬묘의 통곡하던 북
 ◆지왕침 마즈오고 쥬중의 강학하던 육수
 ◆◆◆◆달 업슬손냐 니만춘 남저운은 워
 ◆◆하고 쉼여들고 장숙야강 말이난분 비
 ◆◆하고 이러셔니 강히보중 장중승은 풍
 ◆운이 진탕하고 성복중용 조통판은 의리
 ◆◆삼엄하다 괴작산하 조정이오 상호과
 ◆◆◆하 종탁이라 성인취의 문문순과
 분◆쥬육역 장셔겔과 포저호곡 이약슈난
 중◆부열과 분격하야 두우간의 싸첫쏘다
 분노인물 츠즈가니 흥무구의 뉘뉘런고
 충업공신 셔달화운 건문스절 황관경청
 천지경윤 니티시오 일월정충 방효위르
 엄기빅 츠즈가니 황자명의 눈물이라
 뉴빅과난 천문보고 스가법은 격셔지어
 절강중스 삼천이오 하늬정병 십만이라
 관셔병은 좌익하고 산동병은 우익하여
 중원만 혼즈가랴 동국도 가즈셔라
 임진연 지조은덕 신중황져 이즐손나
 남헌산성 통곡하신 우리디왕 충분이라
 척화하던 삼학스난 견용은 정질하고
 즈결하신 동겨션싱 스직동망 흐즈더라
 정모년의 스절하던 충성부스 김시약이
 금쥬역의 첫총놋턴 성쥬의스 니스룡이
 흥두곡은 집어업고 니석겨난 메여드니

갓탄의리 와룡초당 표은처스 정절이라
 호축늑와 횡비허저 타락잔을 뉘음푸며
 산동총의 강성인씨 조선격문 뉘지은고
 님인관등 보닌일은 조정공스 익들쏘다
 임허처스 북벌의난 집집이 익와스니
 빅호되야 병거저도 이번의야 쓸지로다
 반국괴슈 강홍입은 도시중의 괴렬허고
 강도실슈 김경중은 좃누밋히 효슈허고
 강화허던 최명길은 남디문의 부벌허고
 창희녁스 방마치로 혼으비랄 쑤다리고
 쥬부자 강목필노 쥬쥬록은 씨온후의
 천만셔갑 풀원슈디 보단의 텡셔허고
 조종문 바로나가 모화관의 유진허니
 디중의 니총막오 부중의 님경업이
 김응하로 선봉허고 남이로 돌격허야
 금천병마 칠천으란 최정익 거느리고
 쌍영군스 삼천으란 손남포 거느리고
 화약고의 열흔의빅 검선원도 가즈가즈
 그나마 스절허니 촛촛로 다라나셔
 산희관 도락드러 남경장스 어우르니
 슈록도총 도원슈난 흥복헌설 저갈선싱
 흥중의 춘츄디의 장송의티 공병법국
 궁전티빅 우선은 지휘약정 실소죄라
 육출괴산 고심이오 오증츄풍 여흔이라
 니◆독 유진허고 우리천즈 호위허야
 빅모황월 셔우고 겨복슈이즈 거러놋코
 호의소상 눈물뿌려 불공디천 고명허디
 오황◆ 더혁노시 고모실영 육분이라
 오랑키만 자불마음 화인하느 다칠식럭
 가난고지 님판리오 만닌나니 님적지라
 노좌노우 황동빅슈 가익허며 상여읍왈
 쥬가거마 반갑쏘다 혼관위의 다시보니
 언마누우 렉흔의병 드리여도 나고저도
 난다호타 하건너여 셔역수장 성덩허느
 가전고를 울이면서 승승장수드러가니
 님정이 짓쳐난듯 건곤어뒤 늑난 듯
 연경을 좃발부니 호왕성이 평지로다
 쥬창의 쥬련으로 흥타시를 쓰어니야

마디의 철속으로 동여녹코 슈죄하디
 기갓한 너의늬가 입저중원 멋썸지고
 오금성취 흥무덤 황송인들 할 일인야
 너도또한 유종으로 영고탑이 족하거날
 화이지분 모르고셔 겉오의스 감심하야
 이조성을 의지하고 오삼겨를 쓰기고셔
 우공산천 더럽히고 쥬공전장 어지린다
 뇨동부터 침노한져 중스봉시 도여쏘다
 천하의 중부업다 흘필열의 썸을바다
 인건이 중궁드러 쥬시신민 호령하고
 전픽동남 편지날여 명망하기 너아니냐
 괴슈청역 타시로다 천명어이 거일소냐
 오져슴왕 전슈지를 네집의 쥬단말가
 부즈춘추 디일흥이 네손의 가단말가
 전복후복 구봉강이 네게봉공 하단말가
 추로낙민 현성족이 네게신복 하단말가
 여악문물 옛집의셔 강기비가 멋스르고
 옛부터 중화이적 각각겨흔 달늬스니
 한히디막 네고게고 우양슈초 예성이랴
 음산절넙 네직시오 궁여치막 네거쳐라
 네풍토 말가리오 네종유 달치로다
 소가이의 쥬중이오 디가이위 노션위라
 모성썸난 부락이라 종모빅관 네당하며
 피복업난 요령이라 살용보불 에당하랴
 숙여진의 심여진의 스방공부 무엇하며
 디금슈의 소금슈의 성궐공부 춤남하다
 무다니분이 마음상도춘 어긋릿쳐 삼씩년
 함혹은덕 일조의 빅반하고 한을쏘고
 날은쏘니 옛혈빅야 네속죄 다한소냐
 핏근연경 건도설시 진강노의 지쥬로다
 미복갓판 조선군스 뒤은먼젓 지를적의
 철이싱영 엿육이 오씩년의 관오혁이라
 셔조딤군 심양겨름 그아니 더욱분통
 하아아 아이농하 아벗최를 비알소냐
 망으라기 벗기치고 머리를 버혀니야
 치우괴의 놉피달고 피를몸의 칠한후
 의기가를 부르며 셔고도로 도라올져
 유정중군 피물하든 그호승 싱각하니

귀영기 승승하져 교유격 어딴간고
밋나니 조선이라 좌우영 꾸며스니
실기갓한 우영군스 물부어느 가릴손가
시진역궁 검장군은 쌍의셔셔 쥬거쏘다
좌중영 중관드른 무슨구경 안쯔든고
하나이느 병이지심 가쯔쓰면 차마보고
이슬손가
셔바가며 환장하이 황조플 비반하고
시랑갓한 건주도적 복심이 도엇쏘다
머리각은 네면목은 부모유쳐 아니러냐
굴슬하고 들슈하난 네거동 의잔하다
황천이 내려보니 인간의 둘씩업다
칼춤추든 왜속삼씩 어류라도 의류하다
낫낫치 초훈하여 쇠머리로 저지나
니울이 황제가라시되 조선본심 니알노다
병조진년 성하잉은 금얼복슈 쾌중하다
오오지 승정쳐스 뉘아니 도부하리
어와 천운이야 문무강토 다춧거다
중묘의 음지하고 툃학의 언괵하고
천지의 소고하고 손천의 변저하고
뽕명 일월은 다시볼가 하노라
을스 이월십칠일 필셔하니
보난스람 우슬듯남 슝스오
나이가스 족히보영 죽하도다

[현대역]

대명복수가

◆◆◆ 술을취코1 만리추풍2 다다라서
 ◆백행 외운후의 출사표3 노취하니
 ◆송이상 다던지고 대명소식 어디런고
 남◆토주 들어간후 영력연호4 그만이라
 당◆◆지 있건만은 강한조종 글렀도다
 만◆◆동 이한구는 선조일생5 말씀이오
 용◆◆◆ 세구도는 숙종대왕 여도시라
 유◆신 하건마는 무시신 내하런고
 세대가 침원◆◆ 박물세고6 되단말가
 해마다 동지행◆ 압강7건너 어둡가노
 오호호 복오호라 처◆◆담 하여보세
 금년태세 감신이라 천도◆◆ 부복일세
 풍시쇠란 극한중에 ◆◆풍하천 끝에있고
 시월건음 성한곳의 ◆◆양획 다시나니
 호무백년 옛말이라 제◆인들 오렐소냐
 승정황제8 유민9들라 와신상담10 몇백년고
 조정무신 기다리면 ◆◆지수 말기로다
 만고충의 다모으어 ◆수연운 하여보자
 삼대인물 상의로다 춘추이하 세어보니
 존주실 양이적은 관이오11 이름좋고
 삼촌설12 각제진은 ◆연이 상패하다
 편초하던 오자서오 보한하던 장자방13이
 향연사제 왕축14이오 소◆패월 범여로다
 굴기추호 고사하고 중흥명장 다부르니
 강의대관 광무제오 삼◆정통 축한이라
 반벽강남 남도송은 ◆분더욱 격절하다
 이백기 장위공은 ◆하순무 먼저가고
 등사도 풍대슈는 유병경약 또보내니
 전운통판 관준이오 촌◆중사 방통이라
 육군도독 뉘할런고 악무목 한세충이
 수군도독 뉘할년고 관운장 조자룡이
 유격장의 오한가복 북병장에 장비마초
 그나마 충신의사 멋◆◆ 모였던고
 십년한절 소종량15은 매울◆기 당당하고
 일편봉사 호담암16은 참회담봉 능름하다

소열묘17의 통곡하던 복지왕담 맞아오고
 주종의 강학하던 육수부18들 없을소냐
 뇌만춘 남제운은 액◆하고 뛰어들고
 장숙야19 강만리는 분비20하고 일어서니
 강회보장 장중승은 풍운이 진탕21하고
 성복중용 조통판은 의기◆ 삼엄하다
 기작산하 조정이오 삼호과하 종택이라
 성인취의 문문산22과 분주륙력 장세걸과
 포제호곡 이약수는 장부열기 분격하여
 두우간23의 뽀쳤도다 본조인물 찾아가니
 흥무후의 뉘뉘런고 창업공신 서달24화운
 건문사절 황관경청 천지경륜 이태사오
 일월정총 방효유25라
 엄기백 찾아가니 황자명의 눈물이라
 유백기는 천문보고 사가법26은 격서지어
 절강장사 삼천이오 하내27정병 십만이라
 관서병은 좌익하고 산동병은 우익하여
 중원만 혼자가랴 동국도 가자서라
 임진년 재조은덕 신종황제28 잇을소냐
 남한산성 통곡하신 우리대왕 충분29이라
 척화30하던 삼학사31는 견용32을 정질33하고
 자결하신 동계선생34 사직동망 하자더라
 정묘년에 사절35하니 창성부사 김시약이
 금주역의 허총놀은 성주의사 이사룡36이
 흥두곡37은 집이없고 이석계는 모여드니
 같은의리 와룡초당 표은처사 풍절38이라
 호척나와 행배39할제 타락잔40을 뉘엿으며
 산동창의 강성인께 조선격문 뉘지을꼬
 임인관 등보낸일41 조정공사 애닭도다
 임하처사 북벌의는 집집이 외웠으니
 백호대야 병거제도 이번에야 쓸지로다
 반국괴수 강홍립42은 도시중의 거열43하고
 강도실수44 김경징은 종루밑에 효수45하고
 강화하던 최명길은 남대문의 부벌46하고
 창해역사 방망이로 한의비를 두드리고
 주부자47 강목필로 존주록48을 세운후에
 천만세 갓을원수 대보단49에 맹세하고
 조종문 바로나가 모화관50에 유진하니

대장에 이총무오 부장에 임경업이
김응하로 선봉하고 남이로 돌격하여
검천병마 칠천일랑 최정에 거느리고
쌍령군사 삼천을랑 손남포 거느리고
화약고의 열훈의백 김선원51도 가자가자
그나마 사절하니 차차로 따라나서
산해관 돌아들어 남경장사 어우르니
수륙도총 도원수는 흥복한실 제갈선생
흥중의 춘추대의 장상의 태공병법52
국궁진체53 백우선54은 지휘약정 실소조라
육출기산55 고심이오 오장추풍 여한이라
이제독 유진하고 우리천자 호위하여
백모황월 세우고 거북수이자 걸어놓고
호의소상 눈물뿌려 불공대천56 고명하되
오황◆제 혁노57시고 고묘신령 유분이라
오랑캐만 잡을마음 화인하나 다칠세라
가는곳이 내판도오 만나는이 네적자58라
노좌노우 황당백수 가액하며 상여음왈
주가거마 반갑도다 한실위의 다시보니
얼마나 울직한 의병들이 예도나고
제도난다
호타하 건내어서 역수장성 덮어나가
전고를 울리면서 승승장수 들어가니
뇌정59이 지치는듯 건곤이 뒤눕는듯
연경을 짓밟으니 호왕성이 평지로다
주창의 추천으로 흥타시60를 끌어내어
마대61의 철삭으로 동여놓고 수죄62하되
개같은 너의류가 입제중원 몇번재고
오국성 휘흠무덤 황송인들 할 일이나
너도또한 유종으로 영고탑63이 족하거늘
화이지분64 모르고서 걸오65의사 감생하여
이자성을 의지하고 오삼계를 속이고서66
우공산천 더럽히고 주공전장 어지른다
요동부터 침노할제 장사봉시67 되엇도다
천하의 장부없다 흠필열68의 본을받아
언연69히 중국들어 주씨신민 호령하고
전패동남 편지날려 명망하기 네아니냐
기수70천역71 탓이로다 천명어이 거를소냐

오제삼황72 전수지를 네집의 주단말가
부자춘추 대일통이 네손의 가단말가
전복후복73 구봉강이 네게봉공 하단말가
추로낙민 현성족이 네게신복74 하단말가
예약문물 옛집에서 강개비가 몇사람고
옛부터 중하이적75 각각계한 달랐으니
한해대막76 네곳이오 우양슈초 네성이라
음산전렵77 네직사오 궁려치막 네거쳐라
네풍토 말갈이오 네종류 달자로다
소가이위 추장이오 대가이위 노선우라
모성쫓는 부락이라 종묘백관 네당하며
피복입는 요령이라 산용보물 네당하라
숙여진78의 생여진이 사방공부79 무엇하며
대금수의 소금수의 성궐공부 참람80하다
무단히 분외마음 상도를 어그러쳐
삼백년 함육은덕 일조의 다버리고
하늘쓰고 나를쓰니 네털빼내 속죄다할소냐
핍근81연경 건도설시 진강노의 지주82로다
내복같은 조선군사 뒤를먼저 찌를적에
천리생령 어육이오 백년의관 오늬83이라
세자대군 심양걸음 그아니 더욱분통
한아한아 아이놓아 네죄를 네알소냐
망아래기 벗겨치고 머리를 베어내어
치우기에 높이달고 피를몸에 칠한후에
개가84를 부르면서 고도로 돌아올제
유정장군 패몰하던 그효상85 생각하니
귀영가86 승승할제 교유격87 어디간고
맡나니 조선이라 좌우영 꾸렸으니
신뢰같은 우영군사 물불이라 가릴소냐
시진력궁 김장군은 땅에서서 죽었도다
좌중영 장관들은 무슨구경 앓았던고
하나하나 병이지심88 가졌으면 차마보고
있을손가
세봐가며 환장하여 황조를 배반하고
시랑같은 건주도적 복심이 되었도다
머리깎은 네면목은 부모유체 아닐소냐
굴슬하고 돈수하는 네거동 애잔하다
황천이 내려보니 인간에 돌데없다

칼춤추던 왜적삼백 어류라도 의류하다
날날이 초흔하여 쇠머리로 제지나니
우리황제 가라사대 조선본심 내알도다
병자진년 성하맹은 금일복수 쾌장하다
곳곳이 송정처사 뉘아니 도무하리
어와 천운이야 문무강토 다찾거다
종묘에 음지하고 태학의 헌괘89하고
천지에 소고하고 산천에 편제90하고
대명일월을 다시볼까 하노라
을사91 이월십칠일 필서하니
보는사람 웃을듯 남스럽사오
나의가사 족히보면 족하도다

[각주]

- 1) 술을취고 : 술에 취하고.
- 2) 만리추풍(萬里秋風) : 사방에 가을 바람이 가득함.
- 3) 출사표(出師表) : 위(魏)나라를 치기 위해 출병할 때, 촉(蜀)나라 황제 유선(劉禪)에게 바친 글로서, 국가의 장래를 우려한 전문(全文)은 제갈공명의 진정(眞情)을 토로한 정열적인 고금(古今)의 명문(名文).
- 4) 영력(永曆) : 명나라 마지막 황제인 영력제(永曆帝).
- 5) 선조일생(宣祖一生) : 조선의 14대 왕.
- 6) 박물세고(薄物細故) : 아주 자질구레하고 변변치 못한 사물.
- 7) 압강(鴨江) : 압록강.
- 8) 송정(崇禎) : 명나라 송정제의 연호.
- 9) 유민(遺民) : 망하여 없어진 나라의 백성.
- 10) 와신상담(臥薪嘗膽) : 중국 춘추전국시대 오나라와 월나라 간의 싸움에서 전해지는 고사이며 가시가 많은 나무에 누워 자고 쓰디 쓴 곰쓸개를 핥으며 패전의 굴욕을 되새겼다는 뜻.
- 11) 관이오(管夷吾) : 춘추시대 제(齊)나라의 재상인 관중(管仲). 소년시절부터 평생토록 변함이 없었던 포숙아와의 깊은 우정은
- 12) 삼촌설(三寸舌) : 전국시대(戰國時代) 유세가들이 세 치 혀로 합종연횡을 마음대로 주무르던 데서 유래한 말.
- 13) 장자방(張子房) : 한나라 고조 유방의 공신인 장량(張良). 진승 · 오광의 난이 일어났을 때 유방의 진영에 속하였으며, 후일 항우와 유방이 만난
- 14) 왕촉(王蠋) : 전국시대(戰國時代) 제(齊)나라 사람. 제(齊)나라가 연(燕)나라에게 패하자 항복하라는 연(燕)나라의 권고를 물리치고 자결함.
- 15) 소중랑(蘇仲郎) : 중국(中國) 전한(前漢)의 충신(忠臣)인 소무(蘇武)의 벼슬이름. 무제 때 흉노(匈奴) 사신(使臣)으로 갔다가 억류(抑留)된 지 19년만에 귀국(歸國). 흉노에게 억류된 십년 동안 사신의 부절을 놓지 않고 절개(節概)를 굳게 지킨 것을 익컬음.
- 16) 호담암(胡澹庵) : 중국 남송 때 선비로, 밀봉한 상소문을 올려 금나라와의 화의에 반대한 사람.
- 17) 소열묘(昭烈廟) : 촉나라 황제 유비의 묘.
- 18) 육수부(陸秀夫) : 남송 말기 원(元)과의 애산전투에서 패전이 임박하자 왕자를 업고 바다로 뛰어든 충신.
- 19) 장숙야(張叔夜) : 송나라 때의 사람으로 금(金)나라 군대와 싸워 용맹을 떨침.
- 20) 분비(奮臂) : 나보란 듯이 뽐내는 뜻으로 팔뚝을 걷어붙임.
- 21) 진탕(震盪) : 몹시 울려서 흔들림.
- 22) 문문산(文文山) : 중국 남송의 정치가이자 시인인 문천상(文天祥). 송나라가 원나라에 항복하자 저항하다 체포되었고 쿠빌라이칸이 그의 재능을 아껴 몽고에 전향을 권유했지만 끝내 거절하고 죽음을 택함.
- 23) 두우간(斗牛間) : 이십팔수(二十八宿) 가운데의 두성(斗星)과 우성(牛星). 북두성(北斗星)과 견우성(牽牛星) 사이.
- 24) 서달(徐達) : 중국 명나라의 건국 공신. 주원장의 부하로 통군원수, 강남행추밀원사, 좌상국 등을

지냈고 원군 토벌에서는 25만의 군세를 총지휘했으며 주원장이 즉위하자 무관(武官) 제일의 자리를 차지함.

25) 방효유(方孝孺) : 중국 명나라 초기의 학자. 1402년 연왕(燕王:위의 영락제)이 황위(皇位)를 찬탈한 뒤, 그에게 즉위의 조(詔)를 기초하도록 명하자 붓을 땅에 내던지며 죽음을 각오하고 거부하자 연왕은 노하여 그를 극형에 처함.

26) 사가법(史可法) : 중국 명나라 말의 충신. 이자성의 반란군이 베이징에 쳐들어오자 군사를 이끌고 나갔으나 베이징 함락의 보고가 들어와 되돌아갔다가 양저우에서 예친왕 도도의 청군의 공격을 받아 붙잡혀 살해됨.

27) 하내(河內) : 남성(河南省) 황하(黃河) 이북(以北) 땅의 총칭(總稱).

28) 신종(神宗) : 중국 명(明)의 제14대 황제인 만력제(萬曆帝)로서 '만력중흥(萬曆中興)'이라고 불리는 사회의 발전을 가져옴. 후에 친정(親政)을 하면서 황제의 역할과 정무(政務)를 내팽개치는 '태정(怠政)'을 하여 명(明)의 정치적 혼란을 가져와 멸망으로 이끔.

29) 충분(忠憤) : 충의로 인하여 일어나는 분한 마음.

30) 척화(斥和) : 화친하자는 논의를 배척함.

31) 삼학사(三學士) : 조선시대 병자호란 때 청(淸)나라와의 화의를 반대한 세 학사인 홍익한, 윤집, 오달제를 말함. 삼학사는 결사 항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남한산성이 함락되자 선양에 잡혀가 참형됨.

32) 견용(犬戎) : 중국(中國) 고대(古代) 섬서성에 살던 오랑캐의 이름.

33) 정질(庭叱) : 뜰에서 꾸짖음.

34) 동계선생(桐溪先生) : 조선 중기 문신 정운(鄭蘊). 병자호란 때 이조참판으로서 김상헌(金尙憲)과 함께 척화(斥和)를 주장하다가 화의가 이루어지자 사직하고 덕유산에 들어가 은거하다가 5년 만에 죽음.

35) 사절(死節) : 절개(節概)를 위(爲)하여 죽음.

36) 성주의사 이사룡 : 청(淸)이 명(明)을 정벌하기 위해 조선에 원병했을 때 포사(砲士)로 징발된 이사룡이 금주(錦州)에서 명 장군조대수와 대전(對戰)하였을 때 공포(空砲)로 응전하다가 청군에게 적발되어 고문을 당하면서도 임진왜란 때 명에게 입은 은덕을 상기하며 배반이 불가함을 역설하다 죽은 사건.

37) 홍두곡(洪杜谷) : 조선시대 지사(志士)인 홍우정(洪宇定). 본관은 남양(南陽).

38) 같은의리 와룡초당 표은처사 풍절 : 명(明)이 청(淸)에 망한 것을 개탄하여 와룡산하 도연 위에 와룡초당을 짓고 은거한 표은 김시온의 행적.

39) 행배(行盃) : 잔에 술을 부어 돌림.

40) 타락(駝酪) : 타락죽(駝酪粥). 타락죽은 곱게 간 쌀가루를 우유와 섞어 끓여 만들며, 우유죽이라고도 부름. 우유로 만든 타락죽은 귀한 음식 중의 하나로, 왕이 병에 걸렸을 때 원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먹는 등 특별한 경우에 먹는 보양식.

41) 임인관 등보낸일 : 조선 현종 8년에 제주도에 표류한 95명의 명나라 사람(明人)들을 압송하려 하자 그 결정에 반대하는 신하들과 유생들의 상소가 이어진 사건. 임인관 등 95명은 명나라 부활을 노리는 망명정부인 영력황제(永曆皇帝) 정권의 백성들로, 전에도 명인들을 숨겨주었다가 청나라에 발각되어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기에 현종은 그들을 모두 북경으로 압송함.

42) 강홍립(姜弘立) : 조선 중기의 무신. 명나라의 원병으로 5도도원수(五道都元帥)가 되어 후금을 쳤으나 대패함.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은 부차(富車)에서 대패하고, 강홍립은 조선군의 출병이 부득이하

여 이루어진 사실을 적진에 통고한 후 군사를 이끌고 후금에 항복함.

43) 거열(車裂) : 사람의 팔과 다리를 각각 다른 수레에 묶고, 그 수레를 반대 방향으로 끌어서 찢어 죽임.

44) 강도실수(江都失守) : 강도실함(江都失陷). 인조 15년 청의 침입으로 조정의 전직·현직 고관 등 많은 사람이 강화도로 피난하고, 검찰사 김경징(金慶徵)과 유수(留守) 장신(張紳)으로 방위하게 하는데, 강화도 방위의 총사령관 김경징은 북방민족이 수전(水戰)에 능하지 못하다고 속단하고, 방비를 허술히 하여 청에게 함락당한 사건.

45) 효수(梟首) : 대죄(大罪)를 범한 사람의 목을 베어 매달아 군중 앞에 공시함으로써 대중을 경계시키던 일.

46) 부벌(付罰) : 벌할 것을 청함.

47) 주부자(朱夫子) : 주자(朱子).

48) 존주록(尊周錄) : 조선 숙종 때의 학자 이태수(李泰壽)가 존명양이(尊明攘夷)의 사적(事蹟)을 간추린 책.

49) 대보단(大報壇) : 조선시대에 명(明)나라 태조(太祖)·신종(神宗)·의종(毅宗)을 제사 지낸 사당으로 숙종 31년 창덕궁 금원 옆에 설치함.

50) 모화관(慕華館) : 조선시대 중국 사신을 영접한 곳.

51) 김선원 : 병자호란 때 선원(仙源)

52) 태공병법(太公兵法) : 강태공의 병법.

53) 국궁진체(鞠躬盡瘁) : 제갈량의 <출사표>에 나오는 표현으로, 몸과 마음을 다해 나라를 위해 힘쓰는 뜻.

54) 백우선(白羽扇) : 제갈량이 들고 있었다는 하얀 새의 깃을 모아 만든 부채.

55) 육출기산(六出祁山) : 기산에 여섯 번 나간다는 뜻으로 제갈량이 북벌을 여섯 번 시도한 것을 뜻함.

56) 불공대천(不共戴天) : 한 하늘 아래서는 같이 살 수가 없는 원수(怨讐)라는 뜻으로, 원한(怨恨)이 깊이 사무친 원수(怨讐)를 이르는 말.

57) 혁노(赫怒) : 얼굴을 붉히며 화를 냄.

58) 적자(赤子) : 갓난아이. 임금이 백성(百姓)을 갓난아이로 여기어 사랑한다는 뜻으로, 백성(百姓)을 일컫는 말

59) 뇌정(雷霆) : 우레.

60) 홍타시(洪他時) : 청나라의 2대 황제.

61) 마대(馬岱) : 촉한의 장수. 서량태수 마등의 형의 아들로 마초의 사촌동생.

62) 수죄(數罪) : 죄(罪)를 저지른 행위(行爲)를 들추어 열거(列舉)함.

63) 영고탑(寧古塔) : 청나라 초기에 관외로 유배 보내던 장소.

64) 화이지분(華夷之分) : 중국과 오랑캐의 구분.

65) 걸오(桀鰲) : 성질과 심성이 거칠고 사나움.

66) 오삼계를 속이고서 : 중국 명말 청초의 무장(武將)인 오삼계가 유적 이자성이 베이징을 함락하고 귀순을 권하자 청나라의 중국 본토 진출을 도움. 중국 전토 평정에도 앞장서 3번 중 하나가 되었고 후에 '3번의 난'을 일으켰으나 실패함.

67) 장사봉시(長蛇封豕) : 장사(長蛇)는 긴 뱀, 봉시(封豕)는 큰 돼지. 탐욕(貪慾)이 심한 자에게 비유한

말.

- 68) 흘필열(忽必烈) : 원나라 세조 쿠빌라이의 한문식 표현.
- 69) 언연(偃然) : 거드름을 피우고 거만(倨慢)스러움.
- 70) 기수(氣數) : 길흉화복의 운수.
- 71) 천역(舛逆) : 서로 뒤집혀 거슬리고 어긋남.
- 72) 오제삼황(五帝三皇) : 중국 고대의 전설적 제왕인 삼황(三皇)과 오제(五帝). 즉, 복희, 신농, 황제의 삼황과 소호, 전욱, 제곡, 요, 순의 오제.
- 73) 전복후복(甸服侯服) : 전복(甸服)과 후복(侯服). 전복은 중국에서 둔 오복(五服)의 하나로 상고 때는 왕기(王畿)로부터 5백 리 안의 땅, 주나라 때에는 후복(後服)의 다음 5백 리 안의 땅. 후복은 왕기(王畿)의 주위 오백 리, 혹은 오백 리에서 천 리 사이의 땅.
- 74) 신복(臣僕) : 신하(臣下).
- 75) 중하이적(中夏夷狄) : 중화(中華)와 이적(夷狄). 중국과 오랑캐.
- 76) 한해대막(瀚海大漠) : 넓은 사막. 중국에서는 주로 고비 사막을 이름.
- 77) 음산전렵(陰山畋獵) : 그늘진 산에서 밭 같고 수렵함.
- 78) 숙여진(熟女眞) : 만주(滿洲) 남서부(南西部)에 있어 요(遼)나라에 잘 복종(服從)하던 여진족(女眞族)
- 79) 공부(貢賦) : 공물(貢物)과 부세(賦稅).
- 80) 참람(僭濫) : 분수에 넘쳐 외람되다.
- 81) 핍근(逼近) : 매우 가까이 닥침.
- 82) 지주(指嗾) : 달라고 꺾어서 무엇을 하도록 부추김.
- 83) 오늬(汚衄) : 더러운 코피. 모욕을 뜻함.
- 84) 개가(凱歌) : 개선거(凱旋歌).
- 85) 효상(爻象) : 좋지 못한 몰골.
- 86) 귀영가(貴盈哥) : 병자호란때 후금군을 지휘하던 누르하치의 둘째 아들인 다이산.
- 87) 교유격(喬遊擊) : 명나라 장수 교일기(喬一琦).
- 88) 병이지심(秉彝之心) : 떳떳하게 타고난 천성(天性). 병이지성(秉彝之性).
- 89) 헌곡(獻馘) : 헌곡지례(獻馘之禮). 적과 싸워서 이겨 잘라온 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를 임금에게 바치던 예식.
- 90) 편제(遍祭) : 두루 제사지냄.
- 91) 을사(乙巳) : 1905년으로 추정.

본자료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당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